

아가 강해 요약

서머나 여름 캠프 7/2 - 7/4, 2011

1 강

7월 2일 저녁 8시

솔로몬은 예수님의 지혜를 모형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들 (전도서, 잠언, 아가)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나에 대한 것이고, 아가는 성도들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아가를 잘못 해석하는 해괴한 이단들이 많은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된 책입니다. 아가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 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아가를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가 1:1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쉬르 하쉬르)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중의 노래 (Song of Songs)라는 뜻입니다.

기록 연대는 솔로몬 즉위 초기로 추정됩니다. (그의 비, 빈의 수가 후에 천 명이었는데 아가에는 그 수가 140 명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유월절에 전체를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그들도 이 책의 중요성과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정작 예수님의 진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책의 여주인공, 솔람미는 하나님 백성, 교회를 나타내고,

남주인공,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의 남성형 명사이고, '솔람미'는 평강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즉, 책에서는 솔로몬 왕이 여종 솔람미를 사랑하는 것으로 써있으나 그 속을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솔람미)으로 모형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입니다.

아가를 보면 시간대별 내용이 뒤죽 박죽인듯 보이는데, 이 책을 연대기적 시간 순서로 보지 않고 묵시속에서 보면 어려움이 풀립니다.

묵시는 시간과 역사위에 존재합니다.

시간의 역사속에 내려온 개개인들과 그 들 주위의 사건은 모두 묵시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책은 화자 (speaker)가 누구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또 왕을 보고 '너'라고 하는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에 이러한 오류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은 십자가를 보면서 풀도록 합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 Song of Songs 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배웁시다.

아가 1: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본문에 쓰인 '입맞춤'은 복수형입니다. 그 많은 입맞춤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세상속 기쁨을 대표하고 있는 물질로 등장합니다.

1:2 는 이 역사속 시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랑의 그 수 많았던 입맞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독백입니다.

아가 1:3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기름'은 어떤 존재가 으깨어져야 나오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가 1:4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의 '너는' 솔로몬 왕을 나타냅니다.

'침궁 (헤테르)'은 왕비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에스더 참고). 즉 지성소를 나타냅니다. 그곳은 내가 가면 죽지만, 왕이 이끄시면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열린 곳).

창세기를 보면 '사람(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 '여자'를 만드시니 '사람'이 '남자'가 됩니다.

사람 - 여자 = 남자

이 말은 남자 (아담, 예수님) + 여자 (하와, 교회) = 사람 (온전함)

즉,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곧 그리스도와 의 연합(Union Christ) 입니다.

이것이 요한 복음 17 장 '내가 저희안에, 저희가 내안에' 의 의미입니다.

아가 1: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찌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솔람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나타냅니다.

'게달의 장막'은 너덜너덜한 유목민의 천막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비록 검고 못생기고 형편없어서 다 찢어진 천막같은데, 왕이 나를 그 화려한 왕궁의 휘장으로 보아준다는 말입니다.

그 하얗고 이쁜 여자들에게 '왕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쁘다고 하는구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이쁘다고 하는 옷 (세마포 곧 죽은 자를 감싸는 옷, 선한 행실)을 입어야지 자기가 보아 이쁜 옷 (행위)을 입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인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흑인)을 그의 누이 미리암이 책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문둥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때의 그녀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시다.

아가 1:6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찌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어미의 아들들'은 한 가족같아 보이지만 실은 다른 이복 오빠를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말합니다.

그들이 솔람미 (교회)를 노예로 삼은것입니다. 그로 인해 솔람미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아가 1:7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양떼 먹이는 곳,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은 안식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 곳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운 자’는 창녀를 말합니다 (다말 참고). 이렇게 세상이 그녀를 창녀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 자기가 보기에다 자신이 한심해 보이지만 내게는 예수님의 입맞춤의 기억이 있어
그 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아가 1: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찌니라

‘양떼들의 발자취’는 교회 선진들(성도 곧 신앙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힘들 때 양들의 궤적을 따라 가면 너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가 1: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병거, 금, 여자를 많이 갖지 말라 하셨는데 그는 그 모두를 아주 많이 챙깁니다.
특히 그는 최고의 병거를 얻기 위해 애굽에서 말 병거를 수입했습니다.
‘애굽 바로의 준마’는 최고중의 최고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못생겼다고? 아니 자기는 최고중의 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럴수가)

아가 1: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두 뺨이 땅은 머리털로 가려진 모습은 면사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오직 신랑만이 울릴수 있는 것으로서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아내삼겠다는 뜻입니다 - 예수님의 신부.

노예인 술람미가 구슬 목걸이를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목걸이는 솔로몬이 빙폐물로 주고 간
것입니다. 신부가 그 목걸이를 잃어 버리면 혼인이 파기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만으로 뺨뺨한 우리의 목에 ‘멍에’ 라는 목걸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목걸이가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지만 그것이 쉬운 것입니다.

아가 1: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귀걸이가 나옵니다. 귀걸이는 ... 종이 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종이입니다.

아가 1:12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상’은 침상 또는 식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서 여자와 말씀하실 때 ‘식사하시죠’하니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십니다. 그 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솔로몬)이 여자(종, 솔람미)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침상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곳입니다 - 연합.

이 연합에 나도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녀, 노예였는데 나를 찾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나의 가장 귀한 옥합기름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가 1: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더럽고 냄새나는 창녀인 내게 나의 신랑은 향기를 품어내는 주머니이시다는 말입니다.

내게서 신랑이 좋아하는 향기 (신랑 자체)가 나서 나의 악취를 쫓아내는 그림입니다.

아가 1: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던 피난처입니다 (사무엘상 23, 24 장)

‘고벨화’는 삼위일체꽃, 메시아꽃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아가 1: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노아의 홍수때 썩은 고기를 먹은 까마귀와는 달리 그것을 안먹고 새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온 새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사물을 하나밖에 못보는 새로서, 본문은 '너는 나만 바라 보는구나'라는 지향성을 말합니다.

이 비둘기처럼 우리도 하늘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땅만 보고 살진 않는지 돌아봅시다. 말씀에 집중해 살 때 그 힘이 나올 것입니다.

아가 1:16-17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과 잣나무는 향이 진해 벌레가 안 꼬여 성전 건축에 쓰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 어떤 못된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의 집, 우리의 성전은 영원하리라는 말입니다.

2 강

7월 3일 아침 10시

1 장 강해에서 보았듯이 솔로몬 자신이 실은 솔람미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옷을 입으시고 구원 사역 (성전 건축)을 하시는 모습을 쓰신 게 아가입니다.

이 책에는 묵시와 역사가 번갈아 가며 나타납니다 (신랑이 있다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 그러니 이 책을 시간순, 사건순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로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의 핍박속에서 솔람미가 남편을 부르짖으며 찾고 그 속에서 그녀가 은혜를 배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나요?

창세기 49:16-17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같은 자로 들어와 뱀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가 됩니다.

역사 속에 뱀 (단지파, 가롯 유다)이 투입되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래로 끌어 내리나 하나님은 그 상태의 백성을 은혜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지파대신 므낫세 지파가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 지파 전체가 완성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의 역할을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니다. 그녀들이 율법주의 전체를 모형하기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남성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솔람미 (로마서의 이방인)를 견지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여자들까지 견지십니다 (로마서: 원가지인 이 사람들). 그래서 나중엔 그들이 '시온의 여인들'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수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고 고민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면 우리 선진들이 간 곳이 보입니다.

이제 2 장 들어갑니다.

아가 2: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나는 수선화, 백합처럼 순결하고 아름답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사론은 광야입니다. 그곳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있는 보잘것 없는 것들입니다. 2:1 은 솔람미의 자아 인식을 보여줍니다 - 나는 그렇게 형편없고 자격이 없는데.. 왜, 왜 저를 사랑해주시나요?

아가의 주제는 '솔람미처럼 되자'에 있는게 아니라 '솔로몬이 솔람미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해석이 안되니 조심하세요.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하고 아들은 빙폐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가구, 물건 취급).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집으로 종이 파견되어 그가 신랑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랑의 빙폐물을 전달합니다.

신부는 그 빙폐물을 입고, 걸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은 자기가 준 옷을 보고 신부를 금방 찾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랑을 설명해주시고 빙폐물로 세마포를 주십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7-8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옳은 행실 = 디카이오수네(의) 하기로수(거룩) = 의와 거룩

고린도전서 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즉,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옷이 어떻게 입혀지나요?

계시록 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화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을수가 없는것입니다.
성화의 극치는 내가 비워지고 죽어 하나님이 채워져 그 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세상 힘들이 롯을 붙들어 갔을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4:1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시날은 바벨론의 전신이고, 엘람은 당시 사해지역에서 최강국이였으며, 고임은 앗수르의 전신이였습니다.
즉, 당시 세상 최강의 연합국이 롯을 붙들어 갑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아브라함이 318 명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이것은 기드온과 삼백 용사, 골리앗과 싸운 다윗에서 보여주셨듯이 그 전쟁이 인간이 아닌 여호와와의
전쟁임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얻은 세상적 유익은 없었습니다 - 나의 성화의 길에서 세상 힘을 얻는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살렘(예루살렘)왕 골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 예수님의 살과 피.

창세기 15:1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 영적 전쟁의 승리의 상 - 하나님

에베소서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 우리의 싸움은 세상 힘에 대한게 아니다

골로새서 2:14-15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 율법을 폐하시고 정사와 권세등 에베소서 6:12 에 등장하는 마귀의 세력을 십자가로 무장해제 시키신 것

에베소서 6:13-17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전신갑주 -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무기. 예수님을 입는 것

고린도 전서 15: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최후의 승리의 현실. 우리의 마귀성 - 정사, 권세, 능력 - 을 멸하시고 나라 - 성전, 성도, 나 - 를 하나님께 바칠때라

→ 내가 찢어지고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

고린도 전서 15:25-28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연합되기에 예수님안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드러진다는 것
십자가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신 곳입니다. 그 곳에서 가장 큰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겠습니다.

아가 2: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너는 보잘것 없는 백합화가 맞지만 저주가운데서 건져진 내 꽃이다

아가 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 당신은 나를 살릴수 있는 생명나무 - 메시아입니다.

아가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 (안 바이트); - 왕이 베푼 큰 잔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 출애굽기 17 장 ‘여호와 닛시’ (아론과 훌이 든 모세의 팔) - 승리의 깃발

그 깃발이 나를 덮는게 구원 (옷자락, 독수리 날개)

노아의 홍수사건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너같이 불가능한 놈도 내가 덮어 결혼한다’

‘나는 너를 안 보고 네가 입고 있는 내 아들의 옷을 본다’

아가 2: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낫음이니라

건포도 – 소성제 (포도당 주사 생각)
사과 나무 – 목을 축이는 생수, 생명 나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와 사과 나무 – 떡과 포도주 – 유일한 상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가 2:6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포개진 것. 연합 – 덮는 모습 – 기로 덮은 모습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는 모습 ππ

그를 잃어버리고 어디 있어요? 하고 찾는 우리.

아가 2:7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찌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이 남성형으로 쓰임 –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내 사랑’ – 아가페, 신적 사랑

‘노루와 들사슴’ – 이해가 난해한 단어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했던 70 인역 (헬라이어)을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루 (체루 = 체바오트)’ = 군대, 하늘의 군대

‘들 사슴 (아알라 = 에이알라)’ = 힘과 능력

하늘 군대의 권능으로 얘기하니 우리 사랑에 끼어들지 말라!

아가 2:8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산 (복수), 장애물들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내 신랑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가 2: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어린 사슴’ = 젊은 사슴 = 최강자

그 최강의 신랑에게 덮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신랑이 어디 가신줄 알았는데 내 방 창을 계속 (분사) 들여다 보시고 계시답니다.

아가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나를 깨워서, 의심많은 우리를 일으켜 함께 가자 하시네요 ππππ
어디가 예쁘다고 ππππ

아가 2:11-13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의 인생 (겨울, 비)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반구 (비둘기, 평화의 새)가 울고 꽃이 피는 봄이 우리 땅,
하나님의 땅에 옵니다.

아가 2: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산 비둘기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꿩꿩 감싸고 지키시는 비둘기는 그 어떤 독수리 (대적)의 공격못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입니다.

아가 2: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에스겔 13:4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우리의 포도원’ - 1 장에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포도원을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 주고 계셨고, 그곳에 이제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 2: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 (흔한 것, 보잘것 없는 것)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
세상에서 아름답다 하는 장미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아가 2:17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 서늘할 때 = 심판의 날에
‘베데르 산’ = 베리트 = 언약의 산

심판의 날에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3 강

7 월 3 일 저녁 9 시

솔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시샘과 공격에 의해 흔들릴 때 언약을 붙드는 것으로 2 장이 끝났습니다.

아가 3:1-2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신랑을 다시 잃어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찾아 다녀도 만나지 못하는 솔람미의 모습은 성도의
역사속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가 3:3-4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서의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안개속을 걷는 것 같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묻고 또 그 대답을 해 주실 분은 '말씀'과 '성령' - 성 중에 순행하는 자들 - 이십니다.

그렇게 신랑을 만나자마자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갑니다.

창세전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서 존재와 그 존재에서 나오는 행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위해 역사와 사람이 도구로써 (소모품) 쓰이게 되는것입니다.

이 언약 성취의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어미의 집은 언약, 약속을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신랑을 만나게 해줬을 때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가 나의 처음 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검고 혈어빠진 장막갈던 (처음자리) 솔라미가 그 사실을 잃고 자기도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신랑을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태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것을 알아야 (복음) 신랑을 붙들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역사속으로 떠나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처음 자리 (천하고 불품없는 노예)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막 사는게 다르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 유익을 위해 사는게 막 사는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이는 자기가 부인되고, 처음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로 이끌려 갑니다.

밧세바와 통간하는 과정에서도 율법을 지켜가던 다윗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사람의 더러운 행위를 하나님이 들추어 내십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 첫째 아이를 낳고도 나는 괜찮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가 나단을 통해 죄가 드러났을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아래에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깨닫고 식사를 합니다.

시편 51:5-7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쓰레기라는것을 깨달습니다.

우슬초는 유월절때 어린 양의 피를 문방에 바를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우슬초, 어린 양의 피) 거저 와야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달고도 계속 실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안짓는 자로 지어져 가는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를 깨달으며, 체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1:8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 - 우리아 -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내가 죽인 이 - 그로 인해 구원이 오는 것.

죄인은 죄의 양, 질에 따라 차등있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앞에 20% 죄인, 78%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은 그냥 죄인입니다.

이런 100% 죄인인 나를 신랑이 왜 이렇게 이빠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민망하고 면목없이 다가가서 구애하는것이 화목입니다.

내가 자격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신랑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아가 3: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찌니라

노루와 들사슴이 다시 나옵니다. 새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 신랑의 사랑을 알기에.

아가 3:6

연기 기동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연기와 향기를 풍기며 누군가가 당당히 옵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의 현실이 묵시속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자'가 여성 명사입니다 - 그 향기나는 마차에 술람미가 탈것이라는 확신이 있는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와 향기가 날리는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안의 마귀성과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개선 행렬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나의 옛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에 멸망받을 자 (스스로 살아있다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옛 자아의 죽음을 당한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16)

아가 3:7-10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인이 웅위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솔로몬왕이 레바논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솔로몬의 정예부대가 육백명이었다 합니다. 그 중에서 추리고 추린 육십 (1/10)은 정예중의 정예겠죠?
그 신랑이 타고 있는 마차의 옆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 내가 죽어야 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밤의 두려움 (라일 파하르) - 빛의 어긋남 (하마르티아)’.
밤 - 즉, 죄 덩어리인 나를 죽이기 위해 칼을 차고 오시는 것입니다.

‘레바논 나무로 된 마차’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 즉, 성전을 말합니다.
(10 절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지형)

아가 3:11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씩은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람미 (이방인)를 먼저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온의 여자’가 되어 함께 가는 것 - 천국입니다.

왕의 정통성을 보여 주기 위해선 신랑이 부친의 관을 써야 하는데 신부를 보기 위해선 모친이 면류관을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은 다윗과 밋세바 사이의 둘째 아이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첫째 (죄인으로서의 다윗)가 죽고 둘째가 왕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서자인데다가 둘째입니다. 도저히 왕위를 이을수 없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밋세바를 사랑하기에 된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이의 사랑으로 구원되는 것 - 이게 은혜입니다.

‘모친의 면류관’은 바로 이 은혜, 예수님의 종말의 개선 행차,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 4:1-2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머리털이 염소같다니요? 영구머리?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염소털은 길고 기름져 아름답다고 합니다.

긴 머리라는 말에서 순종의 서약을 한 나실인의 긴 머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긴 머리는 내 위에 순종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 -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

양은 털 깎을 때 한 번 목욕을 한답니다. 이 때 그 양은 깨끗하고 희고 아름답겠죠.

아가 4:3-5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홍색실 - 성전치장과 제사장 옷 지을때 쓰인것입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방패 -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겨 전리품으로 얻은 방패를 망대에 세웠다 합니다. 이게 일천개가 있다는 것은 강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지켜주니까.

젖 - 말쑤를 뜻합니다.

이 젖이 쌍둥이를 둔 노루처럼 커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 4:6-7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 날이 서늘할 때에 - 심판의 날에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 - 예수님의 죽음의 산, 골고다

십자가를 지러 신랑이 골고다 산으로 가시면서도 신부를 Perfect 하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뻐해 주세요? πππ

아가 4:8-12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신랑이 십자가 지러 가실때 신부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다시 묘사하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신부를 누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형제라고도 하십니다. 이게 연합의 현실입니다.
그 원리로 성도는 예수님의 누이 (한 배에서 나온 것)이며, 신부 (한 몸)입니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 에덴 동산 -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해 사는 처소 - 성전 - 우리

에덴이 잠겨진 이유 - 생명 나무가 있기에.

이 곳은 열쇠를 가진 이, 신랑, 예수님만이 여실수 있습니다.
그곳을 열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가 4:13-16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등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등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등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샘, 우물, 시내 - 생수를 먹은 이에게서 생수가 흐르는 모습 (요한 복음)

신랑이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먹게 해 주실때 북풍, 남풍은 아무 방해가 안되고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
날린다는 말씀입니다.

4 강

7월 4 일 아침 9 시

아가 5: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등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 -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친구, 신부로서 연합된 사람들

5:1 에서 눈여겨 볼것은 나의.. 나의... 내.. 내... 나의.. 내.. 내...입니다.

솔람미가 솔로몬이 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디카이오수네, 의와 거룩,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웃입고 점점 내가 부인되어져 가는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신부된 우리의 목시속 현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현실속 신부된 우리의 해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시죠.

아가 5:2-3

내가 잘짜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보고 싶으셔서 밤이슬을 맞으며 쉬지않고 달려 오셨는데 신부가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며 버팅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흠, 맹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문을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

신앙 생활속에 내가 편하자고 게을러 지는 것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발뚱고 편히 잘 수 있는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가 5:4-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빛장에 들는구나

몰약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향입니다.

신랑이 몰약을 문 빛장에 발라 놓고 가심으로 우리의 처음 자리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십니다 (십자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거란다’

아가 5: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문 열어보니 그 분이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은 자는 몇 마디만 받아도 자아가 허물어지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가 5:7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웃을 벗겨 취하였구나

나를 찾아 오신 예수님을 나의 안일을 위해 멀리 했을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나에게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 주었던 순행하는 자들 (말씀, 성령)이 그렇게 나를 두들겨 팝니다 - 너의 처지가 이 모양이다.

아가 5:8-9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흠모하면서도 마귀처럼 살아갈 때, 그 고통이 '병이 난 것'.

이것이 역사속에서 성도가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병을 치료할 것은 건포도와 사과,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솔람미가 예루살렘 여인에게 말할 때 그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현실속에서 너를 도와 주지도 않고 침묵하는 그가 남들 보다 뭐 그렇게 잘 낫다고, 좋다고 하는거니?'

아가 5: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회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회고도 - 순결

붉어 - 피

'순결한 피'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아가 5:11-16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5:11-5:16 은 솔람미가 신랑의 멋진 점을 기억해내는 대목인데 그 묘사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모두 솔람미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들이 이번엔 신랑을 묘사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그 형체를 물려준 것을 신부가 이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찬양하는 자리로 내려 갔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성도의 존재 목적입니다.

5:13 몰약의 즙 - 십자가

행 9:15-16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해를 받다’ – 살인당하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순교자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를 알고 그 현실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을 위해 인간이 도구로, 소모품으로 쓰이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 언약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 4:10-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 (교회)가 자기의 면류관 (모친의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을 올립니다.

자격없는데 왕같은 제사장된것이 부끄럽고 면목없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제꺼 아니고 아버지 것입니다’ – 연합, 순종, 찬양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을수록 바리새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리와 창기의 자리로 떨어져야 합니다.

찬송은 내 존재의 부정, 부인이 전제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놈입니다. 저를 채워 주소서.

이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져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15-17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앞서 배웠듯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만물이 다 세상 마귀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업적, 공로 쌓아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꼬옥 붙드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가 6:1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와준다고 손 내밀며 '그는 떠난거야 바보야'하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아가 6:2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이 동산 (=나)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며 (=말씀으로 기르시며) 백합화 (=솔람미, 나)를 꺾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떠나신 것처럼 보였는데 찾고 보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현실을 겪는 것은 나를 꺾으시기 위해, 옛자아를 죽이시기 위해,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가 6:3-4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6:3 을 보면 내가 예수님안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안에 있습니다. 즉, 성도의 안과 밖 모두 예수님으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어디에 자아가 설 공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디르사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대의 수도입니다.

6:4 는 왕은 이미 솔람미,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왕이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된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치를 벌인 군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것을 깨달은 성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이며 그가 최고의 군대인 것입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젊은 병사들이 집으로 편지를 띄울 때 ‘나는 나폴레옹, 최고의 지휘관과 싸우니 걱정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가 6:5-7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4 장에서 나온 묘사의 반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이쁘세요?

아가 6:8-9

왕후가 욕심이요 비빈이 팔심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 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왕후와 비빈이 140 명(솔로몬 재임 초기)이고 시녀가 무수한데 너 하나가 최고이며 완전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진 이는 너밖에 없다고 여겨 주시며 이뻐하십니다.

‘어미의 외딸’ –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4:21-23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종에게서는 육체(율법)를 따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언약,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24-27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홀로 사는 자 (어미의 외딸)에게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 자유자 - 외딸 - 교회의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솔로몬이 정략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Give-and-Take 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줄것이 없는 비천한 종만 약속을 낼수 있는 외딸이라 하며 이별합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녀에게 다 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가져 오겠느냐?'

아가 6:10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 술람미를 신랑만 의지하여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군대로 묘사합니다.

아가 6:11-12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낫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미가 왕만 들어갈 수 있는 왕의 귀한 호도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군대타는 병거 - 하나님이 타시는 병거가운데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역사속
현실속으로도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꿈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가 6: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술람미가 왕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 율법주의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가시렵니까?

아가 6: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은 야곱이 예서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이었습니다 (창 32). 그곳은 또한 다윗이 압살롬의 무리로부터 피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7).
즉, 마하나임은 우리가 피할 곳, 하나님 나라,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와 연합하여 성전에서 춤추는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돌아오라 할 때 하늘로부터 '술람미는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데 너희는 못 본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가 7:1-9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동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솔로몬이 술람미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것이 다 솔로몬 것이었는데 그것을 술람미에게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가 7: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연합,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아가 7:11-12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들었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1 장에서 배다른 오빠들 (육적 이스라엘, 율법주의)에게 뺏겼던 포도원을 이제 되찾았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사랑을 주겠다고 합니다.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호세아 2:14-15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 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 유대인들이 이방신 몰렉에게 아이를 희생으로 바치던 곳입니다. 요아스가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바꿔 힌놈의 골짜기가 되었는데 이곳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불, 쓰레기에서 나오는 구데기가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이었기에 유대인들이 그 곳을 지옥, 게헨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자들을 살려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답니다 - 여기서는 죽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 - 하나님이 보여 주신 자만 보니까 찾는 이가 적다).

고난을 통과하며 목이 뺏뺏해지는 게 아니라 목이 꺾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가 7:13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들, 광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신부가 쌓은 것은 없고 신랑이 쌓은것만 가득한 곳입니다.

합환채는 마취, 흥분제로 쓰인 뿌리가 사람처럼 생긴 풀입니다.

창세기에서 레아 (첫째 형, 육적 이스라엘)에게 신랑, 야곱을 뺏겼으나 합환채 (성령님)의 도움으로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에 합환채를 통해 성령이 내려 오십니다 (이 부분을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도와 주세요 - 지형) -창세기 30:14-16 을 보면 맥추절에 레아가 라헬에게 합환채를 주고 야곱과 동침을 합니다.

이것은 합환채와 신랑을 맞바꾼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0:22-24 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잉태하게 됩니다.

곧 신랑이신 예수를 육적 이스라엘에게 내어주고 성령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잉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로 시작하여 요셉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한 삶,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합환채는 광야에서만 자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5 강

7 월 4 일 아침 10 시

아가 8:1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네가 = 솔로몬 왕이

솔로몬왕이 나와 친 남매였다면 밖에서 입을 맞추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수사의문문 - 확정적인것을 강조하는 문체) 즉, 누군가에 의해 당신과 나는 친 남매가 되었고 너무도 사랑스러워 밖에서도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아가 8: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꿀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겠고

교훈 - 지혜, 즉, 성전 짓는 지혜를 말합니다.

아가 8:3-4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찌니라

신랑과 하나로 연합된 이 행복함을 깨우지 말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깨지 말았으면... 불행히도 우리는 다시 깨서 세상으로 나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곧 우리의 신랑이 오셔서 그와 함께 살 날이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아멘.

아가 8:5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 오는 여자가 누구이고 너를 인하여 네 어머니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신랑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올라 오는 여자는 솔람미, 곧 목시속의 우리들입니다.
(계시록의 어린 양의 흰 세마포를 입고 환난에서 나온자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예수님입니다. 그 분이 고통으로 우리를 구로해 낳으셨습니다.
사과나무는 앞에서도 보았듯 목마름을 해갈할 생명나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답니다 - 이것이 우리 부활의 목시속 현실입니다.

아가 8:6-7

너는 나를 인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이 잔혹하며 불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찌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의 가장 중요한 구절(요절)입니다.

사랑과 투기는 대척점에 선 것이 아니라 열정을 공통적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강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겨낸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에서 도망가시렵니까?
그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해서 그 어떤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유기하느냐는 질문은 ... 인본주의자의 투덜거림입니다.

아가 8:8-9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찌대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찌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어리고 유방도 없는 누이가 결혼하는데 이복 오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아가 8:10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내가 어려보이지만, 당신들이 뭐라 하든 내 신량은 나만 이뻐한다고 단언합니다.
그가 나를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 그 분이 나를 화평케 하십니다.

아가 8:11-12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무도 엄청난 부를 가져 종들에게 조차도 이백씩 주는 이가 내가 가진 포도원 - 영적 이스라엘, 교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가 8:13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동산 - 새하늘과 새 땅 -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

아가 8:14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 권능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을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야 합니다.

귀한 아가서 강해를 나름 요약하였습니다.

이 말씀뒤 은혜의 찬양을 목이 메이며 부른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노래중의 노래, Song of songs, 성경의 한 가운데 있는 아가서에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 있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꼬옥 끌어 안아 주시는 모습 -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도록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시로 무너지고 예수님께 돌 던지는 나같은 죄인을 완전하다니요.

아마 제가 살아 오며 처음으로 '예수님, 어서 오세요'를 진심에 가깝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신 목사님이 우리곁에 있다니, 우린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주님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에 귀히 쓰이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